



편의점업계
동절기 준비 분주
호빵 등 조기 출시
L1

metro®

Life

K-바이오기업
안과 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등 결실
L2



“자산관리 넘어 다음 세대 육성… 멀티 패밀리 오피스 목표”

속깊은 人터뷰

지희석 스프링플로우 대표

싱가포르의 전 세계 부호들이 가장 빠르게 모여드는 도시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초고액 자산가(순자산 3000만 달러 이상)는 이미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억만장자의 수도 5년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고 규제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갖춘 이 곳은 글로벌 자산가들에게는 ‘안전 가옥(Safe Haven)’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자산가들에 싱가포르는 여전히 낯선 땅이다. 세금 면제와 안전성이라는 매력을 알고는 있지만, 외환 규제와 자금출처 소명 절차, 엄격한 역외과세, 현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해외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탓이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 그룹 ‘스프링플로우’의 지희석 대표는 일찌감치 이 부문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스프링플로우 그룹의 모회사를 싱가포르에 설립했고, 이후 계열 운용사가 현지 금융 당국인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인가를 받았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보험사를 두루 거치며 국내외 금융의 최전선을 경험한 지 대표는, 한국 자산가들에 새로운 자산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두 시장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가교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싱가포르의 규제의 엄격한 속에서 오히려 단단한 신뢰를 다지며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왔다. 지희석 대표는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자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며 “MAS 라이선스를 보유한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 기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금융그룹으로, 업무는 크게 두 축이다. 스프링플로우 웰스 매니지먼트는 자산관리 자문과 컨설팅, 특수목적회사 운영,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을 맡고 있고, 스프링플로우 캐피탈 파트너스는 MAS의 인가를 받은 벤처 캐피탈 운용사로 펀드 운용을 담당한다. 주요 고객은 고액 자산가와 가문, 기관 투자자다. 한국 금융사의 계열사나 현지 법인 이 아니며,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현지 규제의 틀 안에서 성장해 온 독립 회사라는 점이 차별화 된다.”

싱가포르 본사 설립… MAS 인가 자산관리 구조 설계·자문 등 업무 “한국 투자자에 새로운 기회 제공”

- 싱가포르에 설립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다. 통화청의 기준은 엄격하지만 명확하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두번째는 시차다. 한국과 한 시간 차이로 같은 업무 시간 안에 화상 회의를 하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세번째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가 모이는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라는 점이다. 낮은 세금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높은 수준의 치안, 양질의 국제 교육 기관도 고객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이유다.”

지 대표는 서울대학교 공학 학사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금융수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롯데손해보험 등을 거치며 국내 금융기관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다 2017년 캐나다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했고, 2018년 싱가포르로 이전하며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프링플로우는 봄춘(春)과 내 천(川)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춘천’은 지 대표의 고향이다.

-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경험은 어땠나.

“자산운용사에서 글로벌 헤지펀드 리서치, 보험사에서 해외 및 외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며 10여년 한국 기관의 해외 자산 투자 과정을 경험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 교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양국 시장을 직접 경험하며 무엇이 막히는지를 부딪혀 본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 MAS 감독을 받는 회사라는 의미는.

“MAS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은 자격증을 하나 더 갖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싱가포르 금융그룹은 컴플라



지희석 스프링플로우 대표

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하고, 정기적으로 MAS에 보고를 해야 한다. 임원의 자격도 심사 대상 중 하나다. 근거 법률은 증권선물법이며, 이 법이 정한 규제 활동을 하려면 자본시장서비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기업 입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담이 시장에서 신뢰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규제를 받지 않는 곳과 받는 곳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실히 드러난다.”

싱가포르 자산 관리의 핵심 엔진은 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에 있다. 패밀리 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 가문이 자신들의 돈을 전담해서 관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세우는 법인’을 뜻한다. 쉽게 말해, 오직 한 가문(Family)만을 위해 움직이는 맞춤형 자산운용사다. 싱가포르 내 공식 등록된 패밀리오피스 수는 2024년 2000곳을 넘어서며 약 4년만에 5배 증가했다.

- 싱가포르는 왜 주목을 받나.

“싱가포르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 펀드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제도도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130·13U 제도로 정리되어 있다. 통화가 원화가 아니라는 점, 자산이 놓이는 법 관할이 달라진다는 점도 분산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국제중재 센터가 이곳에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도 가까이 있어 안전하다. 한국의 사모펀드 규정은 싱가포르의 가변자본회사에 견주면 설립 절차와 투자자 범위, 자산 편입의 유연성이 훨씬 엄격한 수준이다.”

- 국내 투자자들도 납세 의무를 벗어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한국 거주자는 어디에 자산을 두든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 계좌와 해외 법인은 요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따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있다. 다만 세금이 전부는 아니다. 자산이 원화와 한국이라는 하나의 관할에만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것,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산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것, 승계를 미리 설계해 둘 수 있게 되는 것이 실제로 고객들이 움직이는 이유다. 제도를 지키면서도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 국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투자 상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관리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다. 해외에 법인을 세워야 하는지, 세운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자산을 옮긴다면 어떤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승계를 염두에 둔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특수목적회사의 운영과 관리,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이 더해진다. 특히 해외 자산 회수 자문은 오래 공들여 온 분야다. 해외에 자산을 두면 운용사나 거래상 대방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산을 되찾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진다. 관할이 다르고 절차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스프링플로우는 오랜 기간, 이러한 일을 처리하고 필요한 전문가와 절차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스프링플로우는 올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자산 관리 뿐 아니라 금융 교육으로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다. 올해 겨울, 일주일 안팎의 시범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자산가 자녀들을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론칭할 계획이다. 한 가문의 자산 관리 계획을 설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함께 해 나가는 것, 스프링플로우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 금융 교육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패밀리 오피스 일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가문의 자산 관리를 다음 세대가 맡게 될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은행들은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거기에 있다고 봤다. 한국인들도 특정 은행의 고객이 아니어도, 가문이 패밀리

오피스를 두고 있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는 좋은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

- 교육 프로그램 진행 계획은.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간은 3월, 1주, 2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하려 한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무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가 학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각자 기업을 하나씩 골라 분석 리포트를 쓰고, 포트폴리오 제안서를 만든 뒤 마지막 날 발표를 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싱가포르 금융허브, 자산군과 자산배분, 재무제표와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과 산업 분석 등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평가는 스프링플로우 캐피탈 파트너스의 임원에게 직접 받는다. 수료증만이 아닌, 개별 성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금융 교육 프로그램 론칭 예정 인턴십 연계 등 실질 채용창출 목표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

- 향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

“세 단계를 그리고 있다. 우선 프로그램을 대학 재학생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연계도 준비하고 있다. 인턴십은 2주,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실질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지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스프링플로우의 목표는 뭔가.

“멀티 패밀리 오피스로 자리 잡는 것이다. 가문마다 따로 조직을 만드는 대신 스프링플로우를 통해 자산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위임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펀드와 신탁, 특수목적회사와 법인을 운영하는 플랫폼에 가깝다. 내년 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연결선에 있다. 가문의 자금을 다음 세대가 직접 운용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산가들도 돈으로 싱가포르 자산 운용 자격을 살 수는 없다. 스프링플로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과 함께 스프링플로우도 계속 성장해 가겠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사격 안대명·이보나, 트랩 남녀 개인전 결선행 좌절
▲ 프로배구 컵대회, 내달 11일 개막… “올 시즌부터 FIVB 기준으로 인·아웃 판정”



▲ MLB 올해 정규이닝 평균 시간 2시간42분… ABS 챌린지로 1분 길어져
▲ ‘아시안게임 12년 만의 금’ 여자 농구, 박신자 컵으로 새 시즌 준비

(사진 뉴스)

▲신상우호 여자축구, 한일전 11년 무승 한 풀고 결승 갈까
▲‘전상균 딸’ 역도 전희수, ‘부녀 메달리스트’ 도전은 다음으로